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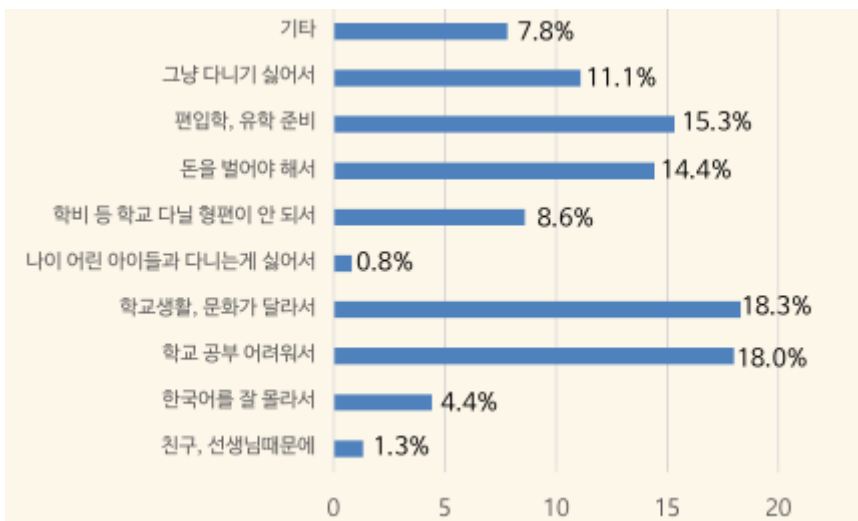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의 방과 후 실태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김용국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1. 현황과약을 위한 통계자료

- 재한외국인 수 : 2019년 12월 255만 / 2021년 12월 205만
- 다문화가구원 : 2020년 2.1%(109만명) / 5183만명
- 전체 출생자 중 다문화가정 출생 비율: 2010년 4.3% → 2020년 6%
-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학생수/비율 : 2012년 0.6% → 2021년 6%
- 경기도 학생수 2010년 대비 2020년 -7.3%
- 전국 다문화 학생수 : 2012년 47,000명 2021년 160,000명 240% 증가
- 경기도 다문화 학생비율 : 2018년 경기도 전체학생은 전년보다 1.3% 감소, 다문화학생은 13.0% 증가
- 학령인구 : 전국 2020년 15.1% / 경기도 16% (이중 초등학생 5.8%)
- 경기도 시군별 이주민 자녀 학생수
안산 5,539명, 시흥 3,183명, 수원 3,177명, 부천 3,042명,
화성 2,658명, 평택 2,285명 ... 과천 29명 (지역별 편차 큼)

- 경기도 사교육 현황 : 2018년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6.1%로 전국보다 3.3%p 높고, 월평균 사교육비(32.1만원)도 3만원 많음
-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 2018년 경기도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41.6%), 우울감 경험률(28.8%)은 전국보다 높고, 전년보다 증가
-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훨씬 길고, 청소년 일반(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과 비교했을 때에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청소년 일반에 비해 대체로 더 긴 반면, 어머니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청소년 일반(1.4%)에 비해 다문화가족 자녀(10.5%)가 월등히 높음.
-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아버지는 3.59점, 어머니는 3.82점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가 더 높음. 이를 초·중등학생 일반과 비교한 결과,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문화 초·중등학생의 관계 만족도가 더 낮음.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



2. 다문화가정 자녀의 방과 후 실태

- 다문화가정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이라 했을 때, 이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하나는 교육적 성장을 목표로 한 학습(지원) 활동(국어, 영어, 수학, 코딩 등)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정서적 만족을 위한 여가활동(문화예술, 스포츠, 영화감상 등)임.

- 다문화가족 자녀의 평일 저녁 활동은 TV, 비디오 보기가 42.2%, 게임, 문자 등 휴대폰하기 41.3%, 게임 등 집에서 인터넷하기 28.3%, 숙제 등 공부하기 25.6%, 그냥 쉬거나 잠자기 14.5%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실태조사에 비해 게임, 문자 등 휴대폰하기(15%p)와 학원이나 과외(5%p)를 하는 경우가 뚜렷이 증가함.¹⁾

- 한편,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구조 상황(한부모 여부), 경제적 상황, 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 차이 등에 따라 방과 후 활동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을 경우 일반 한국인 중산층 가정과 비교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학습격차를 따라잡음.

- 그러나 한부모 다문화가정,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생계해결을 위해 자녀돌봄에 신경쓰기 어려운 경우, 학습격차의 누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짐. 반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방과 후 교실²⁾의 운영은 시군별 편차가 심한 편임.

- 경기도교육청은 ‘함께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 하에 2022 다문화교육 추진계획(안)을 발표함. 이 중 다문화가정의 학습역량 강화와 한국사회적응(특히 외국인가정 자녀나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의 일환에

1)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적응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한국어실력’이라는 전제 하에 문화예술이나 취미활동과 관련한 방과 후 교실은 제외하고, 한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서 추진 중인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지원’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회복과 학업 중단 예방지원’임.

-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 특성이 각양각색이기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모든 시군이 골고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님.³⁾
- 예로 용인시의 경우 2021년에 [별첨1]과 같이 총 6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공교육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과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활용 교재 지원’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이마저도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의 경우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로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활용 교재 지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교재 활용도와 이를 통한 실력향상 정도를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다른 예로 수원시의 경우 2021년 ‘다문화가족자녀 찾아가는 한글국어 학습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주1회 15분 내외에 그쳐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전시행정에 가까움.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실질적으로는 중국어교육에 가까운 ‘제2외국어교육’이나 ‘이중언어교육’사업을 ‘한국어교육’으로 전환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고 ‘온라인 한국어교육’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 교육들은 최소 주1회(1회 2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하거나, 집중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는 주5회(1회 2시간)도 고려해봐야 함.

3) 시군별 특성이 다양하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경기도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음.

①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학습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지원 확대

② 다문화 학생의 학습결손과 학교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 경기도 시군별 다문화 학생의 숫자는 차이가 있으며, 국제결혼가정(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가정(부모 모두 외국인) 학생의 비율 역시 차이가 있음. 공통점이라면 대체로 초등학생의 숫자가 제일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숫자가 적다는 것임. 이는 현재 다문화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의 연령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동시에 다문화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일반 학생과 비교해서 학교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함.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이탈과 학업 중단을 방지할 방안이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결손 정도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이상적으로는 다문화 학생이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 모국어는 ‘한국어’여야만, 이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학습결손을 겪지 않고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임.

- 대표적인 예로 안산시 원곡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주배경의 아이들로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주배경 학

생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편안한 학교생활을 하게 됨.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학교 때와는 온도가 다른,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됨. 한국어가 완벽하지 못하면 중학교 이상부터는 친구관계도 학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가속화되면 학업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매우 쉬움.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며,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임. ‘문화다양성 교육’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함.

③ 연령대별·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의 확대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문화교육’을 ‘문화다양성교육’으로 전환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 연령대에 맞는 문화다양성 교육 필요
- 학생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대상으로도 문화다양성 교육 진행 필요

○ 현재 한국사회에 깊게 인식되어버린 차별적 의미에서의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임. 그러나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해왔지만 이들을 둘러싼 부정적 편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실 용어는 용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중요함.

○ 그렇다해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이미 사회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를 다른 단어로 변경하고 이를 적용하는 일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편의상 서류적 의미에서의 분류체계로서 ‘다문화’라는 단어는 유지하되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서 ‘다문화 교육’이 아닌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일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등 연령대에 맞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학교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통해 자녀와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식의 문화다양성 교육도 권장할만 함.

④ 경기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지원 확대

-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처한 겪고 있는 교육문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가 있음.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⑤ 학생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학업 외 활동 활성화

⑥ 지역 내 경기꿈의학교, 몽실학교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⑦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진로·직업교육 제공

[별첨1]

2021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및 운영, 지원 현황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①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

○ 목적

- 일반학교에 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학교 조기 적응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존감 제고 및 공교육 신뢰감 형성

○ 대상

-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학습 부진으로 개별지도가 필요한 경우

○ 내용

- 한국어교실 강사 1명당 2,800천원 지원
- 단기간(3개월) 강사 채용을 통한 한국어 집중 교육 실시

○ 지원 현황: 상반기(초등 6교)

- 용인성산초, 보라초, 신갈초, 나산초, 둔전제일초, 남곡초)

→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 전시행정의 요소가 있다.

② 다문화언어강사 지원

○ 목적

- 다문화가정 학생의 모국어 지속 유지 발전, 한국어능력 신장, 정체성 확립으로 학교생활 적응력과 교과학습력을 발휘하도록 지원
- 일반 학생의 제2외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및 감수성 증진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 지도,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지원
-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기여

○ 기간 : 2021. 4. 1. ~ 2022. 1. 31.(10개월)

○ 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의 모국어 지도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지도
- 일반 학생 대상 제2외국어 지도 및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상담 및 통역 지원

○ 지원현황

- 지원교: 용인초(중국어), 왕산초(중국어)
- 지원 내용: 강사비 교당 13,200천원(총 26,400천원)

→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사실상 중국어 교육인데, 중국조선족에 대한 지원과 제2외국어 교육을 순수한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조선족에 대한 지원 또한 문화다양성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지원정책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성격이 다르다. 제2외국어 교육은 다문화 교육이 아니다.

③ 다문화.탈북 멘토링 운영

- 목 적 :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기초학력 향상 지원
- 기 간 : 2021. 3. ~ 2022. 2.
- 대 상 : 초·중·고 희망 학생
- 내 용
 - 1) [다문화·탈북 멘토링] 대학생(멘토)이 한국어로 다문화·탈북학생(멘티) 멘토링 지원
 -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고민 상담, 기초학력 향상 위한 학습지도 등
 - 2) [모국어 멘토링] 외국어가능 대학생(멘토)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멘티) 멘토링 지원
 - 멘티의 모국어를 활용한 한국어 습득 및 기초학습 지원, 학교생활 통역 지원

→ 새터민 지원을 문화다양성 지원이라고 해야할지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의 일환인지 생각해 볼 부분이 크며, 이중언어 구사 가능한 다문화 대학생의 멘토 활용 또한 실질적으로 다문화 교육 지원이 절실한 초등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보다 시급하게 시행할 분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④ 다문화 학생 이해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목적: 용인 다문화교육 담당 및 담임교사, 교육전문직원 전문성 함양

- 대상: 관내 희망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내용: 다문화 및 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
- 방법: 교원의 관심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원격직무 연수 실시
- 지원현황: 초중고 희망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30명(1학점)

5] 교육과정 및 생활 속 다문화교육을 통한 학생 다문화감수성 향상 지원

- 목적: 학생(학급)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생활 속 다문화교육 활성화
- 대상: 관내 초,중,고 희망 학급 또는 학년
- 내용: 다문화교육과정 운영, 생활 속 다문화 감수성 향상 여건 조성 지원
- 방법: 교육과정 운영 및 여건 조정을 위한 도서 지원
 - 다문화 교육과정 운영시 활용할 도서 지원
 - 학급 비치(수업 활용) 영어 외 다문화 또는 이중언어 도서 지원
- 지원시기: 2021. 6월 예정

→ 제2외국어교육을 목적으로 각 학급에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도서를 비치하는 것이 문화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명제의 타당성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명확한 연관성을 도출해내기 어렵다. 더욱이 요즘 학생들은 활자보다는 영상에 친숙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6]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활용 교재 지원

- 목적: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향상을 위한 가정학습을 활용 자료 지원
- 대상: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희망교)
- 내용: 다문화학생용 장학자료 한국어 교재(경기도교육청 제작, 10종) 중 학생에게 필요한 수준의 가정학습 등 활용 교재 지원
- 방법: 학생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책자형 형태로 인쇄) 제공
- 지원시기: 2021. 6월 예정

→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교재 지원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나, 그 교재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에 실력향상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